

오피니언

한국지방신문협회 공동 칼럼

光日春秋

승효상



이상향으로 번역되는 유토피아(Utopia)라는 말은 토마스 모어가 1516년에 지은 소설책의 제목이었다. 그는 그리스 어에서 두 단어를 차용해서 만들었는데, 그 뜻이 이중적이다. TOPIA는 장소, 땅이라는 분명한 뜻을 가지는데 비해, U의 의미가 이중성을 띤다.

‘유’라고 발음되는 그리스어는 두 가지가 있다고 한다. eu, ou가 같이 ‘유’로 발음되지만, eu는 좋다고 하는 뜻이며 ou는 아니라고 하는 뜻이니, e와 o를 빼고 그냥 ‘u-topia’라고 하면, 좋기는 좋은데 이 세상이 없는 곳이라는 것이 된다. 즉 상상할 수는 있지만 현실세계에서 존재할 수 없는 도시가 유토피아인 셈이다.

그 책 속에는 유토피아를 설명하는 그림이 있다. 그림 속의 유토피아는 위쪽에 그려진 육지에서 멀리 떨어진 섬이며, 이곳에 오기 위해서는 배를 타고 정해진 입구에 도달해야 한다. 모든 출입을 감시하는 망루가 입구에 솟아 있고, 이를 통과하면 내부를 해자가 또 감싸고 있는데, 곳곳에 설치된 감시망루를 거쳐 섬의 가운데로 들어가면 이 땅을 다스리는 영주의 성채가 나타난다. 즉 한 통치자의 지배하에서 철저한 감시체계를 거쳐 안전을 담보 받는 세계가 유토피아의 모습이었다.

르네상스 시대에 대단한 영향을 준 이 책은 급기야 신도시의 중요한 이론적 바탕이 되었다. 이윽고 유토피아를 구현하기 위한 신도시들이 아프리카 북부에서 스페인 칸타리아에 이르기까지 유럽 전역에 유행처럼 세워졌다.

그 신도시들의 평면은 하나같이 단일종

립은 전형적인 도시의 문제가 되었다.

우리의 땅에도 근대화라는 시대적 과제를 안은 많은 신도시들이 유토피아를 꿈꾸며 세워졌으나 많은 도시문제를 양산한 바 있다. 신도시는 그렇다 쳐도, 더 큰 문제는 오랫동안 고유한 스타일을 일구어온 우리의 옛 도시에 불기 시작한 재개발이라는 사업이었다.

우리의 마을은 서양의 도시와는 그 근본부터 다른 것이다. 머리 속에서 유토피아를 그려서 평면 위에 실현한 도시가 아니라, 자연의 이치를 따라 산과 물이 만든 지리에 복속하며 일궈놓은 풍경이었으니 그 자체가 아름다운 산수화였다.

결과였다. 정치가가 몇 체를 짓겠다고 공약하고 건설자본은 이를 뒷받침하여 그 인기 내에 졸속으로 지어졌으니, 어디에도 우리를 공동체의 삶을 위한 담론이 없었고 건축의 시대적 정신도 없었다. 그분별없는 유토피아는 오로지 스스로 폐쇄함으로 고립된 부동산 공동체일 뿐이었다.

유토피아에 반대되는 말이 있다. 지옥향 혹은 암흑향으로 번역되는 디스토피아(Dystopia)라는 단어다. 1932년 알더스 헉슬리가 쓴 ‘멋진 신세계’라는 소설이나, 조지 오웰의 소설 ‘1984년’에 나타난 비극적 종말을 맞이하는 철저한 통제된 사회가 바로 이 디스토피아다.

외부와 소통되지 않는 이 디스토피아의 세계 역시 예초에는 유토피아를 꿈꾸던 사회였으니, 결국 디스토피아는 유토피아와 같은 뜻이라는 것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똑같이 폐쇄적 공동체인 까닭이다.

얼마 전 서울에서 무상급식에 관한 투표가 있던 날, 서울의 최상층이 사는다는 어느 고층아파트 단지에서 투표 참관인조차 출입을 거부당한 일이 발생했다. 외부인이라는 이유에서다. 사회의 통념과 법규마저 무시하는 폐쇄적 공동체가 벌인 희극이었다. 이 공동체의 미래는 유토피아인가 디스토피아인가. 무엇이든, 폐쇄공동체를 지향하는 한 그 결과는 비극일 게다.

〈2011광주디자인비엔날레 총감독·건축가〉

※ 본란의 내용은 본지 편집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유토피아, 디스토피아

심미의 중앙집권적 구조로서, 내부의 안전을 보장하고자 둘레에는 높은 성벽을 쌓고 그 밖으로 해자를 깔고 파서 철저히 외부와 차단되는 통제적 도시였으며, 육지의 섬이었다.

르네상스 이후 현대에 이르기까지 유토피아의 꿈은 변하지 않았다. 시대마다 새로운 삶을 꿈꾸며 등장한 신도시 모두가 이상적 세계를 동경한 것이었으며 현대의 마스터플랜이라는 도시계획의 수법도 유토피아의 실현을 목표로 한 것이었다. 그러나 실현된 유토피아의 사치가 그 야말로 이상향이었을까? 불행히도 그런 적이 한 번도 없었다. 범죄는 잘 계획된 도시에서 오히려 더욱 많아졌고 갈등과 대

그런데 지난 수십 년간 서양의 도시이론을 흉내 낸 재개발이라는 이름으로 우리의 스타일이 유린당하고 만 것이다. 우리 옛 도시에 불현듯 등장한 아파트단지 그 유토피아를 치졸하게 실현한 대표적 결과였다. 몇 채가 들어서는 아파트 단지는 울타리를 치고 주변을 단절시켰으며 몇 개의 출입구를 통해서 출입을 통제하고, 도시의 도로는 이 단지만 만나면 통과되지 못하고 돌아서 지나야 했다.

결국 도시의 섬이 되고만 아파트단지는 다른 섬들과 부동산가치를 놓고는 대립하며 사회의 갈등을 유발하는 적대적 공동체였다. 더구나 이 땅에 지어온 아파트는 사실상 정치권력과 자본권력이 야합한

MB 정부, 지역균형 발전 포기할 셈인가

기업의 연구개발(R&D) 설비투자 비용에 대한 세금혜택 등이 지나치게 수도권에 편중돼 있는 반면 호남은 비수도권 중에서도 가장 소외된 것으로 나타났다. 현 정부의 수도권 편중과 호남 소외가 갈수록 노골화되고 있는 것이다.

민중당 이용섭의원에 따르면 지난해 R&D 설비투자 비용에 대한 세액 공제는 수도권에 각각 86.7%, 78.7%가 집중됐다. R&D 관련 정부지원이 사실상 수도권 기업에만 이뤄지고 있는 셈이다.

반면, 호남의 R&D 관련 세제지원을 보면 말문이 막힌다. R&D 설비투자 비용에 대한 세액 공제는 0.4%와 1.6%에 지나지 않아 충청권(2.3%, 5.8%)과 경남권(4.3%, 8.6%), 경북권(6.2%, 5.3%) 등 타지방에 비해서도 형편없이 낮았다.

이뿐만이 아니다. 기업투자를 촉진하기 위해 기업의 설비투자금액 일부를 공제해주는 임시투자세액공제의 경우도 호남권 기업은 전체 1조7027억 원

중 523억 원에 불과해 1조2838억 원(75.4%)의 수도권과는 비교가 되지 않을 정도다.

이 같이 기업 R&D 관련 세제지원마저 수도권에 집중될 경우 그렇지 않아도 산업기반이 취약한 지방에 어느 기업이 투자하겠는가. 수도권과 지방간 격차가 더욱 벌어지는 악순환이 되풀이될 뿐이다. 또한 MB 정부의 노골적인 호남 배제가 계속되는 한 지역균형발전은 요원하다.

지금 우리 사회의 화두는 양극화다. 갈수록 심화하는 양극화로 인한 분열과 갈등을 위협수위에 도달해 국가 경쟁력을 저하시키고 있는 것이다. 이런 상황에서 균형발전을 통한 양극화 해소와 국민통합에 앞장서야 할 정부가 오히려 지역간 불균형과 갈등을 부추기고 있으니 누구를 위한 정부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

정부와 여권은 현 정권의 성패가 지역균형발전에 달려 있음을 인식해야 할 것이다.

고사직전 전통시장 활로 대책 마련해야

지난 5년간 광주·전남지역의 대형마트와 백화점 매출액은 크게 증가한 반면 전통시장 매출액은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대기업들이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납품 제조업체들로부터 단가 후려치기 등으로 잔값에 품목을 공급받는 까닭에 경쟁력이 떨어진 전통시장의 영세업체들로서는 당해낼 도리가 없기 때문이다.

국회 지식경제위원회 김태환(한나라당) 의원은 최근 중소기업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유통업 실태에 관한 자료에 따르면 광주지역 대형마트 매출은 5년 새 157% 늘어났고, 백화점도 16% 증가했다. 이에 반해 전통시장은 지난해 매출액이 2008년과 비교, 22%나 줄었다. 전남지역 대형마트 매출액도 5년 새 135%나 늘었으나 전통시장은 28% 떨어졌다.

광주·전남지역 전통시장 수와 점포 수도 각각 줄었다. 지난 2006년 광주지역에는 29곳의 전통시장이 있었지만 지난해는 22곳으로 7곳이 사라졌고, 전남은 123곳에서 114곳으로 9곳이 문을 닫았다. 점포 수도 광주지역에는 지난해 2006년 3586곳이 있었지만 지난해 2933곳으로 19% 감소했고, 전남지역은 8919곳에서 7526곳으로 16%나 줄었다.

전통시장이 이처럼 폐쇄해진 데는 대기업들이 무차별적으로 대형마트와 기업형 슈퍼마켓 사업에 뛰어들어 상권을 잠식한 탓이다. 실제 중소기업의 79.2%가 피해를 봤다고 응답한 것도 이런 이유에서다.

국회는 지난 7월 대형마트와 기업형 슈퍼마켓을 규제하는 유통산업발전법과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을 통과시켰지만 정부는 통상 마찰 등의 이유를 들어 여전히 소극적이다. 지금까지도 지역상권 보호를 위해 소상공인을 강화하고, 전통시장 활로책을 마련하는데 정부가 앞장서야 한다. 지자체 역시 조례 제정을 통해 대형마트 등의 무차별적 진출을 막아야 할 것이다.

無等鼓

시대를 불문하고 새롭게 태어나는 '신 조어'는 그 시대상을 반영한다. 아픈 곳을 정곡으로 찔러 촌철살인의 카타르시스를 느끼게 하기도 하고, 암울한 현실에 대한 안타까움을 표현하기도 한다.

최근 대학가엔 신조어가 봇물을 이루고 있다. 높은 등록금 부담과 취업난을 반영하는 우울한 시대상을 반영한 단어들 대부분이다.

'삼포세대'는 경제적 이유로 연애·결혼·출산 3가지를 포기한 청년층을 뜻한다. 학자금 대출로 졸업 전 이미 빚을 진 학생들은 취업이 돼도 빌린 돈을 갚다보면 목돈을 마련하기 어렵게 된다. 결혼과 출산이 엄두가 나지 않는 이유다.

과거 시골의 부모들은 서울에서 대학에 다니는 자식의 등록금을 보태기 위해 논과 소를 팔았다. 이 때문에 대학을 우골탑(牛骨塔)이라 부르기도 했다. 이 말은 이제 부모 등록금을 빼는 '동골탑' 혹은 '인골탑(人骨塔)'이라는 신조어로 격하게 변했다.

'청년실신'은 대학생 대부분이 졸업 후 실업자, 신용불량자가 된다는 의미다. 등록금을 벌기 위해 다단계 일까지 하는 대학생들도 있다. 주로 서울 거여동·마천동의 15평짜리 지하합숙소에서 공동생활을 하며 감시당하듯 절망속에 하루하루를 보내는 이들을 '거마대학생'이라 부른다. 일부 다단계 업체들이 이들에게 비싼 물건을 팔기 위해 대출을 받도록 하는 수법으로 부당 이익을 쟁긴 것으로 드러나 대대적 단속이 이뤄지기도 했다.

졸업 전 이미 마지막 학기를 다니는 '졸업예정자'를 대신해 '실업예정자'로 불리기도 한다.

대학에서 보편화된 스튜디오 힘든 현실을 반영하는 단어로 바뀌고 있다. 비슷한 기법, 직종에 취업을 준비하는 학생들이 같이 공부하며 정보를 공유, 학습효과를 높여려는 스튜디오는 최근 공무원, 임용고시까지 확대됐다.

젊은 영혼의 절망을 파고 드는 우울하고 섬뜩하기까지 한 대학가 신조어들이 밝고 건강하게 바뀌는 날을 기대해 본다. /최재호 정경부 차장 lion@kwangju.co.kr

의로 칼럼



유선열

병에 걸리지 않고 평생 건강하게 삶을 영위하고 싶은 욕구는 인간이면 누구나 가지는 자연스러운 바람이다. 나이가 들어가면서 사람들을 불안하게 하는 것은 바로 '암'이다. 혹시 내가 암에 걸리지 않을까 하는 막연한 불안감, 특히 생활습관이나 식습관이 바람직하지 못하거나 가족 중에 암 환자가 있는 경우라면 불안감을 넘어서 공포감을 갖는 경우도 종종 있다.

그래서 정기적인 건강검진을 받아야만 할 때도 불구하고 검진 결과에 대한 불안감 때문에 차일피일 미루다, 결국에는 건강에 이

구강암 검진 소홀히 하지 마세요

상이 생기고 나서야 병원을 찾는 경우를 주위에서 흔히 볼 수 있다.

통계에 따르면 암은 현재 우리나라 성인의 사망 원인 1위를 차지하고 있고 암의 발병률 또한 점점 증가하는 추세다. 그런데 위암, 간암, 폐암 등 다양한 암들 중에 구강 내에서 생기는 암에 대해서는 잘 들어보지 못하고, 잘 일어나지 않거나 별것 아닌 것으로 생각하는 경우가 많다. 그러나 불행히도 구강암의 발생 가능성은 생각보다 높다. 구강암은 위암, 폐암, 간암, 대장암에 이어 한국인 남성에게 다섯번째로 많이 발생하는 암이다.

이러한 구강암의 원인으로서는 흡연, 씹는 담배, 음주 등을 들 수 있으며 특히 음주와 흡연을 함께 한 경우에는 정상에 비해 15배 정도 높은 구강암 발병률을 보인다. 그 외에 불량한 구강위생, 충치, 잘 맞지 않은 보철물에 의한 만성 기계적 자극에 의해서도 발생한다. 보통 혀나 볼의 점막, 입술 등에 발생하는

계양은 대부분 구내염과 같은 염증성 증상을 보이며 1~2주일 정도 지나면 자연히 치유된다. 그러나 3주 정도 지나도 없어지지 않는 계양이나 백색 또는 적색을 띠는 구강점막의 변화는 단순한 구내염으로 보기 어렵기 때문에 조직검사를 받아보는 것이 좋다.

구강암의 전체 5년 생존율은 56% 정도로 낮은 편에 속한다. 미국암학회의 통계에 따르면 구강암의 생존율은 1기는 68.1%, 2기는 52.9%, 3기는 41.3%, 그리고 4기는 26.5%이다.

지금까지 진단과 치료방법에 많은 발전이 있었고, 최근에는 진단 키트의 발달로 인해 간단하고 통증이 적은 진단방법을 통해 조기진단이 가능하다. 구강암은 조기진단이 된다면 암종 절제술 및 재건술을 통해 완치가 가능하다.

구강암을 효과적으로 예방하기 위해서는 흡연, 잘못된 음주 습관, 자외선에 과다한

노출 등의 위험 인자들을 피하도록 주의해야 한다. 또한 식습관의 개선 및 과일, 녹황색 야채, 비타민 A·C·E 등의 섭취가 구강암의 발생을 예방한다는 연구 결과도 보고되었다. 그리고 잘 맞지 않는 틀니나 오래 사용돼 닳아지고 날카로워진 보철물 등에 의해 구강점막이 지속적으로 자극을 받으면 상처가 생기고, 이것이 구강암으로 전환되는 경우도 종종 있으므로 이에 대한 주기적인 검진과 개선도 필요하다. 이차적으로는 조기 발견으로 완치의 가능성을 높이는 것이 중요하다. 또 구강암으로의 전환 가능성이 높은 전암병소를 조기에 발견해 치료한다면 구강암으로의 진행을 막을 수 있다.

이제는 정기적인 건강검진 시 일반적이지 않거나 폐암 등에 관심을 갖듯 일상적인 구강검진 때에 구강암에 관해서도 관심을 가져야 할 때이다. 구강암 예방과 치료를 위해서는 자극성 음식물을 피하는 생활습관을 들이고, 금연은 필수이며 과음도 삼가야 한다. 정기검사는 물론 구강 문제가 생기면 병의원을 곧바로 찾는 것이 좋다.

〈전남대치과병원 구강인면외과 교수〉

기고

21세기 인류의 도전 과제 '깨끗한 물'



이석천

세계 최고의 과학자, 공학자들로 구성된 미국 공학한림원(NAE)에서는 21세기 인류가 반드시 해결해야 할 '위대한 도전'과제로 '깨끗한 물에 대한 접근성 개선'을 선정했다. 깨끗한 물은 누구나 균등하게 혜택을 누려야 할 대상이다.

그렇다면, 우리의 현실은 어떠한가? 우리나라는 도시와 농어촌 간 먹는 수돗물의 양과 질의 차이가 뚜렷하다. 대도시는 수도 보급률이 100%에 육박하나 읍·면 지역은 40%에 불과하다. 양질의 수돗물 공급을 위한 고도 정수처리시설 도입이 필요하나 농·어촌 지역은 소독, 모래여과 등 재설비 정수처리

에 의존하고 있다.

또한, 대도시는 유수율이 86%에 이르나 농·어촌지역은 수도시설이 노후화돼 유수율이 62%에 불과한 실정이다. 이로 인해 도시와 농어촌 간 수도 요금 격차가 심하다. 한 예로 강원도 정선군은 m당 1349원으로 수도 요금이 가장 높은 반면, 경기도 과천시 는 m당 421원에 불과하다.

이러한 현상은 우리나라 수도사업의 운영 체계에서 비롯된다. 현재 광역 상수도는 1개 기관이 관리해 전국적으로 동일한 요금을 적용하고 있으나, 지방상수도는 운영 능력이나 재정여건이 상이한 164개 지자체가 각각 관리하므로 지역별로 수도 요금과 서비스의 차이가 발생한다.

164개 지자체 중 88%가 영세한 사업 구조이다. 이와 같은 시·군단위 중소 규모 정수장은 규모의 경제가 없고 재원과 전문가 부족하여 수돗물 품질이 낮을 수밖에 없다.

또한, 높은 생산원가와 낮은 수도요금으로 인한 재원 마련의 어려움은 노후 시설 개선도 어렵게 만든다. 노후화된 관은 수돗물의 품질을 낮출 뿐만 아니라 누수의 원인이 된다. 한 해 동안 지방상수도에서 누수되는 수돗물의 양이 약 8억m, 손실액은 4900억 원에 달한다. 지역별 누수율은 전북이 25%로 가장 높고, 전남도 24%로 높은 수치를 보여 준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에서는 물 산업 구조 개편을 추진하기 시작했다. 정부는 영세한 지자체가 운영하고 있는 지방상수도를 통합해 운영하고, 노후 수도관을 교체하는 등 지방 상수도의 체질을 개선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또한, 현재 수도서비스 평가 체계를 정비해 국제적 흐름과 동향을 반영하여 경영개선을 유도할 계획이다. 물 산업 구조 개편에 참여하는 지자체에 일정 금액의 국고를 지

원하는 등 국가적 차원의 지원시스템도 구축하고 있다.

지방 상수도가 새로운 모습으로 시민들을 찾아갈 것이다.

노후화된 수도관은 새 관으로 교체되고, 소규모로 운영되던 정수시설은 통합돼 운영될 것이다. 땅 속으로 스며들던 누수 비용도 수도 운영의 귀중한 재원이 되고, 전문가가 운영·관리하는 깨끗한 수돗물이 새 관을 통해 가정으로 공급된다. 더욱 신속한 민원 서비스를 받을 수 있어 시민들의 만족감은 더욱 커질 것이다.

생명의 근원인 물, 우리 국민 누구나 깨끗하고 믿을 수 있는 물을 마시기 원한다. 더 이상 대도시민과 농어촌지역 주민들이 제공받는 수돗물 서비스에 차별이 있어서는 안 된다.

이제는 모든 사람들에게 보다 공평한 수도 서비스를 제공되고, 물로 더 행복한 세상이 되어야 한다. 21세기 인류의 도전 과제인 '깨끗한 물에 대한 접근성 개선'에 우리나라가 가장 먼저 도달할 수 있기를 기대해 본다. (K-water 전남지역본부 부부장)

몸짱 열풍 속 다이어트 식품 양심불량 판매 많아

S라인이나 V라인이라는 말이 마치 일반 명사처럼 쓰이는 시대이다. 거기다가 식스팩, 팔각지 등 몸짱을 일컫는 말이 무수히 많다.

모두 건강과 섹시미를 추구하는 현대인들의 공통적인 욕구를 대변하는 시대적 흐름을 반영한 것이니 딱히 좋다 나쁘다고 말할 수는 없다. 다만, 이런 열풍이 국민 개개인의 건강과 체력을 향상시킨다면 국가 건강보험 재정을 탄실하게 할 수 있으니 몸짱이

되기 위한 개인들의 노력은 오히려 높게 인정해 줘도 될법하다.

다만, 한가지, 몸짱이 되겠다며 지나치게 무리한 다이어트를 하거나 불필요한 약물 복용 등 무리한 노력이 해가 되고, 몸짱 열풍 속에 장사속만 내세운 업소들의 불결한 영업에 피해를 보는 일은 당하지 말아야겠다.

그중에 하나가 다이어트 식품이다. 무턱대고 다이어트 식품을 먹었다면 부작용을 겪을 수 있다. 검증 안 된 다이어트 식품을 잘

못 먹어 위장장애를 일으키거나 뇌신경 장애 그리고 피부에 문제가 생기는 경우들이 많다. 그리고 식품의 특성 때문에 간기능에 악영향을 미치는 경우도 적잖다.

이런 식품은 지방이 빠지는 게 아니라 수분이나 근육이 빠져 요요현상 부를 수 있고 면역기능이 떨어져서 질병위험을 높일 수도 있다.

무엇이든 과유불급이라고 한 것처럼, 적절한 선에서 최선을 다하되 무리해서는 안되며, 이런 소비자들의 욕구를 이용해 장사만 하려는 장사꾼들도 양심껏 영업을 함으로써 피해자가 생기지 않도록 각별히 유념해야 할 것이다. ▲문서희·광주시 광산구 송치동

◇독자투고 환영합니다

독자투고를 기다립니다. 주인의 작은 이야기들, 생활의 경험 등 어떤 내용의 원고나 사진, 만화, 민평도 환영합니다. 채택된 원고는 고료를 지급합니다. 원고를 보내실 때는 이름, 주소, 전화번호를 함께 적어 주십시오. 501-711 광주광역시 동구 금남로 2가 20-2 광주일보 오피니언 담당자 전화 062-2200-628 팩스 062-222-4918 이메일 opinion@kwangju.co.kr

光 卍 日 報		The Kwangju Ilbo	
회장 金鐘宅	사장·발행·편집·인쇄인 柳濟喆	논설주간 申港樂	편집국장 李庚完
1952년 4월 20일 創社 1980년 11월 29일 등록번호 광주지111211 / 광주광역시 동구 금남로 2가 20-2 우편번호 501-711			
대표전화 222-8111·2200-551(지사·지국/국독신청·매달인내)		광고문의 062-227-9600	
편집국내선 (대표 FAX 222-4918)	문화생활부 2200-661	경영지원국 2200-515	문화회보국 2200-541
편집부 2200-649	여론매부 2200-621	(F A X 227-8005)	(F A X 227-0195)
정경부 2200-612	체육팀 2200-697	광고매케팅국 227-9600	독자서비스국 2200-551
(대표 FAX 222-4918)	사진부 2200-693	(F A X 227-9500)	(F A X 227-9500)
사회부 2200-616	조사부 2200-571	디자인 2200-536	서울지사 02-773-9331
(대표 FAX 222-4267)	전산팀 2200-685	기획사업국 2200-555	(F A X 02-773-9335)
※구독료 월정 10,000원 / 부 500원			
본지는 신문윤리 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			